

국어 영역

■ 화법

1. 토의 형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은 ‘특별한 사전 작업 없이’ 모여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식이다. 제시된 토의에서는 사회를 보는 학생이 사전 준비를 하기로 했지만 사전에 준비할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회를 보며 모임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② ㉠은 바람직한 모델이 될 만한 여행 개요를 준비한 사람이 회의를 이끌어 가는 토의로,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되는 토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은 여행에 관한 각자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아이디어를 나누는 방식이다.

⑤ 어떤 토의 형식이든 참여자들은 활발하게 참여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 제안의 성격과 내용 파악 [정답] ③

㉢에서는 한 사람이 모임을 준비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주장하였다.

① 자신이 생각하는 방안의 장점만 언급되었을 뿐 상대방 주장의 단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② 다른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이라는 파급 효과는 언급되었지만 상대방 주장의 장점과 비교하지는 않았다.

④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의 단점만을 제시하였다.

⑤ 상대방 방안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3. 발화의 의의 파악 [정답] ①

[A]는 모임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대목이다. 또한 아무 준비 없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학생 1의 우려를 감안하여, 사회를 볼 학생 2와 기록을 맡은 친구가 미리 자료를 읽어 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제3의 방안을 도출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논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지는 않았다.

④ 기존 사례는 언급되지 않았다.

⑤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한 추가 논의를 제의하지는 않았다.

■ 작문

4. 작문의 특성 파악 [정답] ③

(가)를 통해 글쓴이가 친구들이 청소년 성인병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인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글을 통해 글쓴이는 청소년 성인병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실현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언급한 내용은 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방안도 아니다.

① 글쓴이는 청소년 성인병 문제를 교지에 게재해 학교에서 공론화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하고 있다. 이는 작문을 통해 공동체의 담론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 ‘학생의 초고’를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자료를 토대로 글감과 관련된 내용의 생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④ (나)에서는 청소년 성인병의 원인을 먼저 제시한 후,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원인을 먼저 언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구성 방법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다.

⑤ (가)에서 학교 친구들이 청소년 성인병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성인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하였다. 이 같은 목적을 고려해 초고에서는 청소년 성인병에 경각심을 갖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작문이 집필 목적을 고려해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나타낸다.

5.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보기〉의 ㉡는 비만인 사람의 나트륨 섭취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는 것과 나트륨이 성인병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나트륨 섭취가 즉석식품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둘째 문단에 식습관 측면의 성인병 발병 원인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추가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① ㉠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청소년 성인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없다.

③ ㉡는 비만인 청소년의 나트륨 섭취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많고, 나트륨이 성인병을 유발하며, 청소년의 나트륨 섭취가 즉석식품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청소년에게 운동과 취미,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④ ㉠, ㉡의 자료에서는 청소년 성인병의 발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은 청소년의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청소년의 성인병 발병률 추세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6.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은 청소년에게 성인병이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다. 청소년에게 성인병이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서와 같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고쳐쓰기 방안이 아니다.

① ㉠의 ‘인식해 왔다’는 주어부인 ‘일반적으로 ‘성인병’으로 분류되는 심장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등은’과 자연스럽게 호응하지 않는다. ‘인식되어 왔다’로 수정해야 한다.

② ㉠의 ‘성인병이’는 뒤의 ‘이어지며’와 호응하지 않는다. 이는 서술어 ‘이어지며’에 맞지 않는 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성인병이’의 ‘이’를 ‘으로’로 고쳐야 한다.

③ ㉢의 ‘넘어’와 ‘초과한’은 의미가 중복된다. 둘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한다.

④ ㉢은 앞뒤 문장을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안을 추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가 아니라 ‘그리고’를 사용해야 자연스럽다.

■ 문법

7. 단어의 구조 이해 [정답] ⑤

제시된 자료를 통해 봤을 때 ◇는 접사, ◎는 어근, ☆는 어미임을 알 수 있다. ‘휘날리고’에서 ‘휘-’는 일부 동사에 붙어서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그리고 ‘날리고’의 ‘날-’은 어근이고, ‘-리-’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며, ‘-고’는 어미이다. 그러므로 ⑤의 ‘◇+◎+◇+☆’ 형태가 적절하다.

8. 사전 활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인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는 ‘틈⁰¹[I] 「2」’의 용례에 해당한다. ‘틈⁰¹[I] 「4」’의 용례로는 ‘오해가 생겨서 친한 친구인 영호와 틈이 생겼다.’를 들 수 있다. ① ‘틈⁰¹[I]’은 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 다의어에 해당한다.

② ‘틈새’는 ‘틈⁰¹[I] 「2」~「4」’의 유의어이고 ‘겨를’은 ‘틈⁰¹[II]’의 유의어이기 때문에 ‘틈새’와 ‘겨를’은 교체해서 사용할 수 없다.

⑤ ‘틈새 「1」’의 의미는 ‘틈⁰¹[I] 「1」’의 의미에 ‘사이’가 더해진 것이다.

9. 중세 국어의 이해 [정답] ①

㉠은 현대어 풀이를 볼 때, ‘말할 것이니’인데 이는 세존의 일을 말할 것이라는 화자의 말을 나타낸 것이므로 여기에 ‘일’을 듣는 대상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에서 ‘-시-’는 ‘세존’을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이다.

③ ㉢에는 부사격 조사 ‘에’가, ㉣에는 부사격 조사 ‘예’가 사용되었다. ㉢과 ㉣의 형태가 다른 것은 ㉣의 앞에 ‘ㅣ’나 ‘ㅣ’ 계열 이중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기 때문이다.

④ ㉢은 ‘쇼셔’에서 ‘소서’가 되므로 현대 국어의 표기를 참조할 때,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화가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의 ‘ㅅ’은 현대 국어의 ‘의’처럼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한다.

■ 독서

[10~15] (예술+과학)

「쇠라의 점묘법으로 알아보는 인상주의 미술」

이 글은 빛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상파의 기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특히 쇠라의 점묘법에 주목하면서 빛의 가산 혼합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그림에 활용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색 대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통해 쇠라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보색 대비와 보색 잔상 효과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을 캔버스에 담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10. 세부 내용의 파악 [정답] ②

이 글은 순간적으로 포착한 빛의 인상을 화폭에 옮기고자 노력한 인상파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쇠라의 점묘법에 주목하고 있다. 쇠라는 빛과 색에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통해 빛의 가산 혼합과 색의 감산 혼합의 차이를 알게 되었으며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의 효과를 응용하여 빛 입자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이를 수천 개의 색점으로 표현하였다. 이 글에서

는 이처럼 인상파의 빛과 색에 대한 탐구를 과학적 지식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① 사물의 본질 규명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미술적 탐색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빛을 화폭에 담고자 노력한 화가들이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였음을 설명한 것이다.
- ③ 미술 감상에 있어서의 대립적 관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빛과 색의 차이에 대한 지식을 통해 빛을 화폭에 담기 위해 노력한 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보색 대비 활용과 관련된 미술사의 발전 과정을 살핀 것이 아니라, 쇠라가 활용한 보색 대비만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시각 신경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각 신경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각에서 발생하는 보색 잔상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그림을 그린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11. 핵심 내용의 추리

정답 ②

색이 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다른 인상파 화가들과 달리 쇠라가 어떻게 물감으로 빛을 그릴 수 있었는지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1문단을 보면 루드가 빛과 색의 차이점을 설명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빛은 가산 혼합, 색은 감산 혼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빛을 그리기 위해서는 색이 가진 감산 혼합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쇠라는 색을 혼합하거나 물감을 칠하는 방법 대신 색점을 찍어 뇌속에서 서로 혼합되어 보이는 색의 잔상 효과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이는 3, 4문단에서 언급한 빛에 대한 뇌의 반응을 쇠라가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여 화폭에 색점으로 구현한 것이다.

- ① 대상의 색채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그린 것이 아니라 색점을 찍어 표현하였다.
- ③ 빛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색채를 과학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 ④ 일곱 가지 색을 혼합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입자라는 지식을 바탕으로 수천 개의 색점을 찍어 빛의 잔상 효과를 이용하였다.
- ⑤ 빛을 그리기 위해 다양한 색을 혼합한 후 분할 묘사법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다.

12. 다른 자료를 통한 정보의 추리

정답 ④

〈보기〉를 보면 430나노미터 파장은 파랑, 700나노미터 파장은 빨강이라 할 수 있다. [A]에 따르면 보색 대비 효과는 빨강-초록, 노랑-파랑의 보색을 인지하는 선조 피질의 대립 세포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파랑-빨강은 보색이 아니기 때문에 보색 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보기〉를 보면 빨강 원추 세포와 초록 원추 세포가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색 색맹인 경우, 빨강 원추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강의 파장 영역에서 초록 원추 세포만이 기능함을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빨강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를 초록(녹색)으로 인지하게 된다.
- ②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550나노미터 파장의 경우 초록과 빨강의 원추 세포만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전색맹의 경우 색을 구별하는 원추 세포가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명암을 감지하는 간상세포만이 정상적으로 반응함을 알 수 있다.
- ⑤ 〈보기〉의 그래프를 보면 480나노미터 파장의 경

우 세 가지의 원추 세포가 모두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다.

13.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③

쇠라는 루드의 『현대 색채론』을 통해 빛은 가산 혼합의 성질을, 색은 감산 혼합의 성질을 띠을 알게 됨으로써 물감을 섞거나 칠하는 것을 통해서는 밝은 빛을 제대로 그려 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쉬브렐의 『색채 대비와 조화의 법칙』을 통해 보색 관계에 있는 색의 효과를 알게 되고 이들을 응용하여 점묘법이라는 기법을 구상해 탁해지지 않는 밝은 빛을 화폭에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색의 혼합이 지닌 특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물감을 혼합하지 않고 점묘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섞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 ② 쉬브렐의 색채 대비와 관련한 책은 보색 대비를 통한 강렬한 인상을 설명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의 선택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쇠라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색의 종류를 규명한 것은 아니다.
- ⑤ 대상이 지닌 원래의 색을 화면에 사실적으로 구현한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을 그린 것으로, 쇠라가 주목한 것은 대상의 원래 색이 아닌 빛이었다.

14. 다른 자료와의 비교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③

이 글은 빛을 포착하여 화폭에 담고자 노력했던 인상파 화가에 대한 것이며, 〈보기〉는 19세기 후반의 미술이 지닌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상징주의는 상상력에 의지하여 감성적 변화를 섬세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하였음을 제시한 글이다. 따라서 인상파는 빛의 변화에, 상징주의는 감성적 변화에 주목하여 그림을 그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 ① 〈보기〉를 통해 상징주의가 색채의 표현에서 새로운 발상을 했음을 알 수는 없다. 색채에 대한 상징주의 회화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인상파는 그림을 통해 사진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술의 발명으로 위기감을 느낀 이들은 신고전주의적 정확성에 그 뿌리를 둔 아카데미즘 대가들이었다.
- ④ 상징주의는 환상적인 화폭으로의 변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인상파는 사진보다 더 사실적인 화폭을 제시하려 했기 때문에 환상적인 화폭으로 변화를 꾀했다고는 할 수 없다.
- ⑤ 상징주의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5. 조사 '와/과'에 대한 이해

정답 ①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이며,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는 '와/과'는 비교의 의미나 일 따위를 함께 하는 공동의 의미를 지닌다. '내가 갖고 있는 것과'에서 '과'는 비교의 의미를 갖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② '긴장', '이완'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고 있다.
- ③ '국어', '영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고 있다.
- ④ '레몬', '귤'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고 있다.
- ⑤ '예법', '음악'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고 있다.

■ 문학

[16~21] (고전 산문)

(가) 『『기재기이』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 소설인 『금오신화』(김시습)를 잇는 『기재기이』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한 평론적인 글이다. 『기재기이』에 수록된 네 편의 소설, 「안빙몽유록」, 「서재야회록」, 「최생우진기」, 「하생기우전」의 형식 및 내용상의 특징을 해설하고 있으며 작가 신광한의 삶의 내력이 소설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어 작가론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

(나) 신광한, 「안빙몽유록」

기재 신광한(1484-1555)의 작품집 『기재기이』(企齋記異)에 수록되어 있는 네 편의 소설 가운데 하나로,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몽유록체 소설의 초기 작품으로 평가되며, 꽃을 의인화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설총의 「화왕계」, 임제의 「화사」의 뒤를 잇는 가전 작품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내용은 주인공 안빙이 꿈속에서 궁중에 들어가 만난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전개되는데, 출당화가 변한 여인의 말을 통해 기묘사화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투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꽃이 가지는 상징적 측면을 의인화하여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로 지어낸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신광한, 「하생기우전」

『기재기이』에 실린 전기 소설이다. 어려서 부모와 사별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하생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하생은 평소 준수한 용모와 남다른 재주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유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재 등용의 모순으로 벼슬에 발탁되지 못하여 울적하게 지내던 차에 복사(점쟁이)를 만나게 된다. 복사의 예언대로 어떤 여인(귀신)을 만나 그녀를 소생시킨 후 백년가약을 맺고 해로한다. 그 후 벼슬도 얻고 자식을 낳아 세상에 이름도 드러나게 한다.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게 특징적이다.

16. 사실적 정보의 확인

정답 ③

1문단에서, 『금오신화』를 우리나라 최초의 고전 소설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150여 년 뒤의 「홍길동전」을 꼽았다. 그리고 1553년에 나온 『기재기이』를 우리나라 소설 문학 형성기의 공백을 메워 준 작품으로 소개하였다(②). 이에 따르면 세 소설이 나온 순서를 ‘금오신화 - 기재기이 - 홍길동전’으로 확인할 수 있다(①). 그러나 (가)를 통해 『기재기이』가 당대 사람들에게 『금오신화』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4문단에서 한 작가의 삶의 이력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소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 후, 신광한의 삶의 이력이 『기재기이』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 ⑤ 2문단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17.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다)에서 조정의 인재 선발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신광한이 현실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었다고 한 (가)의 내용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여러 물건들이 괴변을 일으켰음을 알았다고 한 것은 현실 사회의 모순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 ① (가)의 2문단에서 가전체 소설은 사물의 의인화를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안빙몽유록」에서 파랑새와 다양한 초목들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을 볼 때, (나)는 가전체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신광한은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15년간의 은거 생활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파직 전후의 기묘사화 사건으로 말미암은 심리적 충격에 기인한 바가 큰데, 이러한 점을 「안빙몽유록」의 미인(출당화)과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 ③ (가)에서 신광한은 비록 글공부의 시작은 늦었지만 학습 능력이 뛰어나 ‘발 빠른 준마’ 소리를 들을 정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신광한의 면모는 「하생기우전」의 하생에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이생규장전」은 끝내 여인과 이별한다는 점에서 비극적 결말을 보여 주는 데 반해, 「하생기우전」은 무덤 속 ‘여인’이 살아 나오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행복한 결말로 맺어진다.

18. 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 ②

- ㉠과 ㉡ 사이에 전개된 내용은 ‘꿈’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면 (나)는 액자 소설의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① (나)는 시종일관 작품 밖 존재인 작가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 ③ ‘꿈꾸기 전(㉠) - 꿈속 - 꿈에서 깨어난 후(㉡)’의 이야기 전개이므로 (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서술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안빙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적 존재로 그려져 있다.
 - ⑤ 꿈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의동자는 파랑새에, 이부인, 반희 등은 화단의 꽃과 나무에 인격을 부여한 존재들이지만 꿈 이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의인화된 존재가 아니다.

19. 작중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 ②

- 자신감에 넘쳤던 ‘하생’이 인재로 등용되지 못한 것은 인재 선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말과 행동의 앞뒤가 어긋나 모순됨’을 의미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궁여지책(窮餘之策):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하여 짜낸 계책.
 - ③ 군계일학(群鷄一鶴): 닭의 무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의 학이란 뜻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 ④ 화용월태(花容月態):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과 맵시를 이르는 말.
 - ⑤ 금실지락(琴瑟之樂): 부부간의 사랑.

20.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서, 여인의 부모가 가난하고 부모까지 여인 하생의 신분을 꺼려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통해 당대 사회가 신분 사회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인재로 발탁되지 못하던 하생이 여인의 도움을 통해 입신양명의 꿈을 이루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① 이미 목숨을 잃은 여인과 하생이 만나고, 여인이 다시 소생하여 하생과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은

- 생과사를 넘나든 전기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 ② [A]에서 「하생기우전」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는 재자가인형 인물을 등장시켜 주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재능이 출중한 하생과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은 이 재자가인형 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A]에서 주인공의 일대기가 모두 드러나는 것이 고전 소설의 보편적 구조라고 하였는데 「하생기우전」에서도 주요 인물들의 후일담을 전하는 방식으로 그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 소설의 보편적 구조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 ⑤ 하생은 여인을 소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 탓에 여인의 부모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지 못한다. 이는 당대 사회에서 있을 수 있었던 혼사 장애의 단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1. 서사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②

- ‘복사’가 하생에게 말한 내용, 즉 ‘여인과의 만남’은 그 자체가 운명론적인 것이므로, 불우한 처지에 몰려 운명론에 빠져 있던 하생이 ‘복사’의 영향으로 운명론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